

# 콜롬비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8. 6.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11
IV. 국제신인도	15
V. 종합 의견	17



## I. 일반개황

국명	콜롬비아 (Colombia)	수도	보고타 (Bogota)
면적	1,139천 km <sup>2</sup>	GDP	3,122억 달러 (2017년)
인구	49.3백만 명 (2017년)	1인당 GDP	6,334 달러 (2017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Peso (Ps)
대외정책	경제실리외교	환율(달러당)	2,971 (2017년)

- 콜롬비아는 남미대륙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브라질, 페루, 에콰도르, 파나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국토면적은 한반도의 5배 수준이며, 2017년 기준 인구는 49백만 명으로 중남미 제2위, GDP 규모는 3,122억 달러로 중남미 제3위 규모임.
- 콜롬비아는 원유, 석탄 등이 풍부한 자원부국으로, 원자재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2010년 집권한 산토스(Santos) 대통령이 2014년 재선에 성공하며 상·하원 내 중도우파 성향의 여권연정(국가연합사회당, 보수당, 급진변화당)을 통해 양원 다수석을 확보하고 있었음. 2018년 3월 총선결과 여권 연정이 다수석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산토스 대통령은 2016년 최대 반군단체인 좌익무장혁명군(FARC)과의 평화협정 체결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음. 산토스 정부는 평화협정의 순조로운 이행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가운데, FARC와의 평화협정 체결로 치안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콜롬비아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회원국 및 한국, 미국, EU 등 FTA 체결국들과는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베네수엘라 위기사태로 인한 치안불안 및 구제비용 발생으로 베네수엘라와 마찰을 겪고 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sup>e</sup>	2018 <sup>f</sup>
경제성장률	4.9	4.4	3.1	2.1	1.9	2.7
소비자물가상승률	2.0	2.9	5.0	7.5	4.3	3.5
재정수지 / GDP	-0.9	-1.8	-3.4	-3.0	-3.1	-2.7

자료: IMF

#### □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인프라 투자 증가로 경제성장률 소폭 상승 전망

○ 콜롬비아 경제는 수출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재(원유, 석탄, 커피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수출비중(2017년 기준) : 원유(54%), 석탄(14.2%), 커피(7.9%), 보석류(5.3%)

○ 2010~14년 기간 동안 유가상승 등에 힘입어 연평균 4.8%의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 원유 생산량 축소, 민간소비 위축 및 투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16년에 2.1%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2017년 또한 낮은 원자재 가격의 지속으로 1.9%의 저성장 기조를 이어감.

○ 2018년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민간소비 증가, 공공 인프라 투자 증가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2.7%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원유생산량은 2017년에서 0.8% 증가한 860천 배럴/일로 예상되며 원유생산시설 투자 확대와 서부 텍사스 중질유(WTI)의 지속적인 가격상승세\*로 원유 부문의 전반적 개선이 기대됨.

\* 유가동향(WTI, US\$/bbl) : 43.34('16) → 50.85('17) → 60.00('18) → 64.50('19) → 68.00('20)

- 열악한 도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콜롬비아 정부가 2014년부터 도로건설 프로젝트(4세대 도로사업\*)를 추진 중에 있어 이에 따른 인프라 투자 확대가 예상됨.

\* 4세대 도로사업(4G Program) : 16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로 총길이 8,170km의 도로와 159개의 터널을 건설하는 등 총 50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됨.

#### □ 사회복지 프로그램 및 평화협정 이행으로 인한 정부지출로 재정적자 기조 지속

○ 산토스 정부는 2011년 재정준칙 수립 등을 통해 적정한 재정수지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2014년까지는 양호한 재정상황을 유지하여 왔음. 하지만 2015~16년 저유가 기조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저성장으로 인한 세수 축소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GDP의 3% 이상으로 확대됨.

\* 연도별 재정수지/GDP(%) : 0.1('12) → -0.9('13) → -1.8('14) → -3.4('15) → -3.0('16)

○ 2017년에는 저유가 기조 유지와 기대 이하의 세계개혁 효과로 재정적자가 GDP의 3.1% 수준을 기록함. 산토스 정부는 세수기반 확대를 위해 부가가치세 인상(16% → 19%) 및 과세 대상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세계개혁을 실시한 바 있으나, 세수증가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

○ 2018년 유가 회복세로 재정수입이 비교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회복지 프로그램, 연금제도 개선 및 좌익무장혁명군(FARC)와의 평화협정 이행으로 인해 정부지출이 가속화되어 GDP 대비 2.7%의 재정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 목표물가수준인 3%대에 근접하여 물가는 안정 추세

○ 산토스 정부는 3%±1%의 목표물가수준 설정을 통해 물가관리를 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물가상승률은 2~3% 수준을 유지해 목표물가수준을 달성함. 하지만, 2015년 및 2016년에는 폐소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과 식료품 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각각 5.0%, 7.5% 수준까지 상승함.

○ 2017년에는 환율 하락\* 및 식료품 가격 안정으로 물가상승률이 4% 초반 수준으로 다시 둔화되어 정부의 목표물가수준에 근접하였으며, 2018년에는 유가 회복에 따른 폐소화 강세와 수입물가 하락으로 3%대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환율추이(연중평균, 페소/달러) : 2,392('14) → 3,149('15) → 3,001('16) → 2,971('17) → 2,876('18)

## 2. 국제 경제

<표 2>

주요 국제경제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sup>o</sup>	2018 <sup>f</sup>
경 상 수 지	-12,503	-19,765	-18,775	-12,393	-10,700	-8,451
경상수지/GDP	-3.29	-5.23	-6.45	-4.43	-3.43	-2.57
상 품 수 지	3,179	-4,640	-13,787	-9,855	-6,800	-4,619
수 출	60,282	56,899	38,263	33,384	37,800	43,077
수 입	57,103	61,539	52,050	43,239	44,600	47,696
외 환 보 유 액	41,196	44,943	44,778	44,977	46,706	-
총 외 채 잔 액	97,752	113,786	122,089	139,363	151,547	160850
총외채잔액/GDP	25.7	30.1	41.9	49.4	48.5	49.9
D. S. R.	13.9	19.9	28.1	26.3	31.7	30.7

자료: IMF, EIU, OECD.

### 가. 대외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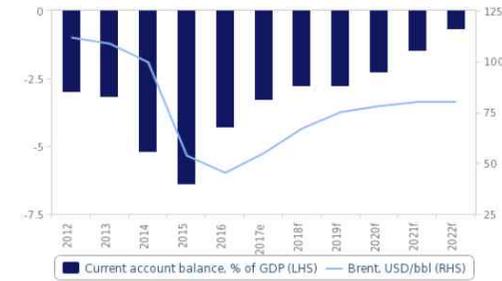
#### □ 유가회복으로 인한 수출증가 및 FDI 확대에 힘입어 경상수지 적자폭 축소 전망

- 콜롬비아는 원자재 의존형 수출구조에 따라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과 해외 기업들의 과실송금 등으로 인한 소득수지 적자규모에 의해 경상수지가 결정됨.
- 2014~16년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출부진으로 상품수지 적자규모가 확대되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4~6% 수준으로 확대되었음. 2017년에는 무역수지 개선으로 적자규모가 3%대로 축소되었으며, 2018년에는 유가회복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 증가 및 FDI 확대\*에 힘입어 적자 규모는 2%대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FDI 금액(137억 달러)은 전년 대비 20억 달러 증가했으며 향후 2018~21년 평균 150억 달러로 증가 전망  
(투자분야 : 에너지(원유 및 가스), 제조업, 금융 / 주요투자국 : 미국(22%), 영국(17%), 파나마(16%)

\*\* IMF의 콜롬비아 경상수지/GDP(%) 전망치 : -2.6('18) → -2.6('19) → -2.5('20)

<그림 1> 유가변동에 따른 GDP 대비 경상수지 변동 추이



자료 : BMI

### 나. 외채상환능력

#### □ FDI 확대와 해외 차입 증가 등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외환보유액 수준 유지

- 콜롬비아는 기업환경 및 치안 개선에 따른 FDI 확대와 해외 차입 증가 등에 힘입어 향후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외환보유액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월평균수입 대비 외환보유액이 2013년 5.6개월 수준에서 2017년에는 8.1개월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콜롬비아는 2016년 6월, IMF와 115억 달러 규모(2017년 외환보유액의 40% 수준)의 신축성 신용공여 계약(Flexible Credit Line)\* 체결을 통해 2018년 6월까지 유동성 위기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무리 없이 계약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됨.

\* IMF로부터 부대조건 없이 크레딧라인 한도내에서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 위기 예방 목적의 IMF의 금융수단

#### □ GDP 대비 외채규모 및 DSR은 증가 추세

- 콜롬비아는 재정·경상수지 적자 보전을 위해 2017년 25억 달러의 국채를 발행하는 등 외채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2017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이 48%를 상회하고 있어 주요 중남미 국가\* 중에서 외채상환부담이 큰 편이며 2018년에도 총외채잔액은 증가 추세\*\*일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주요 중남미국가 총외채잔액/GDP(%) : 멕시코(39.2%), 브라질(36.3%), 아르헨티나(36.2%)

\*\* 외채규모 증가 추이(달러) : 1,394억('16) → 1,515억('17) → 1,609억('18) → 1,702억('19)

- 2017년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32%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수출증가율 대비 상대적으로 큰 외채증가에 따라 D.S.R.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2017년 말 기준 외채 1,515억 달러 중 중장기외채가 67%를 차지해 비교적 건전한 외채규모를 보여주고 있음.

### 3.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미국에 대한 높은 교역 의존도, 원자재에 대한 수출 편중

- 미국에 대한 수출 및 수입이 전체 교역액의 27%(2017년 기준)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미국 경기 변화에 민감함.
- 콜롬비아 정부는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의 전환에 따라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확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아시아 국가와의 FTA 체결\*을 추진 중에 있음. 특히 최근 3년간 콜롬비아 수입시장에서의 중국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음.
  - \* 아시아 국가 FTA 체결 현황 : 한국('16년 7월 발효), 중국(체결 협상 중), 일본(체결 협상 중)
  - \*\* 중국의 콜롬비아 수입시장 점유율 : 18.7%( '14) → 18.9%( '15) → 19.5%( '16) → 19.2%( '17)
- 콜롬비아는 원자재(원유, 석탄, 니켈, 커피 등)가 수출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등 그 비중이 매우 높아 국제 원자재 가격이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 수출비중(2017년 기준) : 원유(54%), 석탄(14.2%), 커피(7.9%), 보석류(5.3%)

##### □ 교통인프라 미비

- 콜롬비아는 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가 미비하여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경쟁력지수(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7-2018) 교통인프라 부문 세부 항목별 순위는 137개국 중 도로 110위, 철도 96위 등임.
  - \* 주요 중남미국가 교통인프라 부문 세부항목별 순위 (도로/철도) : 칠레(24위/74위), 멕시코(52위/65위), 아르헨티나(96위/83위), 브라질(103위/88위)
- 열악한 도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콜롬비아 정부는 2014년부터 주요 도시 및 항구를 연결하는 도로 인프라 육성정책(4G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4G 프로그램 개요 및 진행 현황**

- 기 간 : 2014~20년
- 목 적 : 내륙 교통 개선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및 고용창출
- 총 규 모 : 160억 달러
- 주요내용 : 총 8,170km의 도로 신설, 기존 도로의 복구 및 159개의 터널 건설 등
- 진행현황 (2017년 기준)
  - Girardot-Honda-Puerto Salgar 구간 (공정률 59.8%)
  - Barranquilla-Cartagena 구간 (공정률 57.6%)
  - Pamplona-Cucuta, Bucaramanga-Pamplona 등 12개 사업 2018년 중 착수 예정

#### 나. 성장 잠재력

##### □ 부존자원 풍부

- 콜롬비아는 석탄 매장량과 생산량은 각각 중남미 2위, 1위를 차지하고, 원유 매장량과 생산량은 각각 중남미 4위, 3위를 차지하는 등 부존자원이 풍부함. 또한 니켈, 금, 구리, 철광석, 보크사이트, 에메랄드 등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 자원별 매장량 / 생산량(2016년 기준)
    - 석탄 : 49억 톤(중남미 2위, 세계 18위), 91백만 톤/년(중남미 1위, 세계 10위)
    - 원유 : 20억 배럴(중남미 4위, 세계34위), 0.9백만 톤/일(중남미 3위, 세계 21위)
    - 니켈 : 1.1백만 톤(중남미 4위, 세계 13위), 7.3만 톤/년(중남미 2위, 세계 9위)

- 콜롬비아는 세계 3위 커피 생산국(세계 커피 생산량의 9% 이상)으로 2017년 기준 커피는 콜롬비아 수출의 7%를 차지하고 있음.

□ 비교적 큰 내수시장 보유

- 콜롬비아는 2017년 기준 인구가 49백만 명으로 중남미 2위, GDP는 3,122억 달러로 중남미 3위 규모로 비교적 큰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경쟁력지수(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7-2018) 시장규모 부문에서 137개국 중 37위로 비교적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음.

\* 주요 중남미국가 글로벌경쟁력지수 시장규모 순위 : 브라질(10위), 멕시코(11위), 아르헨티나(32위), 칠레(44위)

□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 지속 추진

- 산토스 정부는 과거 Uribe 정부 시절(2002~10년)부터 이어온 친시장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 등을 체결하여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세계은행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2018년 기업경영여건 종합순위(Ease of doing business ranking)는 190개국 중 59위,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멕시코(49위), 페루(58위)에 이어 제3위를 기록하여 타 중남미 국가 대비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

- 특히, 자금조달(세계 제2위), 소액 투자자 보호(16위), 사업청산(33위) 부문에서는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2016년 11월 최대 반군단체 좌익무장혁명군(FARC)와의 평화협정 체결로 콜롬비아 치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OECD 가입으로 향후 투자환경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됨.

\* 중남미 국가 OECD 가입 현황  
 - 멕시코('94년), 칠레('10년), 콜롬비아('18년)  
 - 브라질, 코스타리카도 가입 추진중

다. 정책성과

□ FARC와 평화협정 체결 및 이행을 통한 치안 개선 적극 추진

- 산토스 정부는 정부-반군간 52년 동안 지속된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2012년부터 좌익무장혁명군(FARC)과 평화협상을 진행하여 왔음.

<표 3> 평화협정 주요 일지

일자	내용
2012. 11	산토스 대통령, FARC와 협상 개시
2016. 8	정부와 FARC, 최종 평화협정안에 합의
2016. 10	평화협정안, 국민투표 찬성 49%와 반대 50%로 부결*
2016. 11	정부와 FARC, 개정**된 평화협정안에 합의
2016. 12	평화협정 개정안 의회 최종 통과 및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

\* FARC 반군에 대한 면책조항 및 2026년까지 선거와 무관하게 FARC측에 10석의 의석을 보장하는 내용 등에 대한 거부감이 국민투표 부결의 주원인으로 작용

\*\* 개정안의 내용에는 FARC 멤버에 대한 비사법적 처벌강화(체류가능지역 외 이동제한 등) 및 은닉 정치자금 환수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으나, 국회내 FARC측 10석 의석 보장 내용은 유지됨

-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로 평화협정에 대한 법적 절차는 완료된 상태이며, FARC의 무장해제 등 평화협정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 콜롬비아의 치안개선과 투자환경 향상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됨.

- 산토스 정부는 임기가 만료되는 2018년 8월까지 평화협정 이행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평화협정 수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강경 우파(민주중도당)가 2018년 5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향후 평화협정 이행에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표 4> 정당별 성향 및 평화협정 태도

정치 세력	좌파	중도 우파	강경 우파
정당	자유당(PLC) 대안민주당(PDA)	국가연합사회당(U) 보수당(PCC) 급진변화당(PCR)	민주중도당(CD)
평화협정에 대한 태도	기존 평화협정 유지	기존 평화협정 유지	평화협정 수정 및 반군(FARC) 지도부 처벌 필요

- 뿐만 아니라,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FARC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 일부 FARC 잔여세력의 불법마약거래단체 가담, 최후 반군세력인 민족해방군(ELN)과의 평화협정 체결 등 치안개선을 위해 해결해야할 사항들이 남아있음.

□ **세계 개혁 실시**

- 산토스 정부는 2016년 부가가치세 인상 등 세계개편안을 마련하고 2017년부터 시행중으로, 조세제도의 효율성 제고 및 정부의 세수기반 확대를 통한 재정건전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세계개혁은 부가가치세 인상(16%→19%), 과세대상자 확대, 탈세 및 조세회피 근절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정부는 세계개혁에 따른 재정수입의 증가를 통해 재정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나, 현재까지 세계 개혁에 따른 세수증가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임.

□ **2018년 5월, OECD 가입**

- '13년 OECD로부터 공식 회원국 가입을 초청받아, OECD의 가입승인 로드맵에 의거 정치·사회·경제 등 23개 분과위원회의 평가를 마치고, '18년 5월 25일자로 OECD의 3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승인됨.
- '13년 9월 채택된 콜롬비아의 가입승인 로드맵에는 OECD가 추구하는 근본 가치와 회원국으로서의 의무, 23개 분과위원회\*의 평가 범위와 일정 등이 기술되어 있음.
- \* 국제거래 투명성, 공공기관 관리, 금융시장, 보험·연금, 경쟁, 세금, 환경, 화학, 행정관리, 규정체계, 국토개발, 통계, 경제, 교육, 고용, 노동·사회, 보건, 수출금융, 농업, 어업, 과학기술, IT, 소비정책
- ※ 중남미 국가 OECD 가입 현황
  - 멕시코('94년), 칠레('10년), 콜롬비아('18년)
  - 브라질, 코스타리카도 가입 추진중
- OECD 가입으로 선진국 반열에 진입했다는 대내외적 홍보효과 및 정치·경제적 투명성·안정성 제고될 것으로 전망되며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III. 정치 · 사회 동향

1. 정치 안정

□ **2018년 3월 총선 결과, 여권 연정의 다수의석 확보로 안정적 국정 운영 지속**

- 2010년 집권한 산토스(Santos) 대통령이 2014년 재선에 성공하며 상·하원 내 중도우파 성향의 여권 연정(국가연합사회당, 보수당, 급진변화당)을 통해 양원 다수석을 확보하고 있었음.
- 2018년 3월 총선 결과, 산토스 대통령 소속여당인 국가연합사회당은 상원 및 하원에서 4당으로 전략하며 총선에서 가장 성적이 부진했으나, 중도우파 여권 연정 중 급진변화당의 약진으로 중도우파 여권 연정이 상원에서 43%, 하원에서 3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다수의석을 유지함.
- 국가연합사회당의 부진은 산토스 정부가 FARC와의 평화협정에 치중한 나머지 경제 성장에 소홀히 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보여준 것으로, 콜롬비아 국민의 70%가 산토스 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 반면, 우리베(Uribe) 전 대통령이 이끄는 강경우파 성향의 민주중도당은 상원에서 16%의 득표율로 개별 정당 가운데 1위를 차지하며 1당으로 도약하였으며, 하원에서는 2014년 선거와 비교시 13석의 의석을 추가해 2당으로 약진함. 좌파 진영 정당들은 상·하원에서 각각 11%를 득표함.

<표 5> 정당별 상·하원 의원 의석분포

정당	상원		하원	
	2014년	2018년	2014년	2018년
민주중도당(CD)	20	19	19	32
급진변화당(PCR)	9	16	16	30
보수당(PCC)	18	15	27	21
국가연합사회당(U)	21	14	37	25
자유당(PLC)	17	14	39	35
녹색연합당(AV)	5	10	6	9
대안민주당(PDA)	5	5	3	2
혁신당(MIRA)	0	3	3	3
시민선택당(OC)	5	0	6	2

□ 2018년 6월 대선 우파성향 후보 당선 유력

- 3월 총선과 동시에 실시된 대선후보 경선에서, 우파계열에서는 우리베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민주중도당 소속의 이반 두케(Ivan Duque) 후보가, 좌파계열에서는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후보가 대선후보로 확정되었음.
- 지난 5월 27일 치러진 대선 1차 투표에서 우파 후보 이반 두케(Ivan Duque)가 39%의 득표율을 차지하면서 좌파 후보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25%)에 비해 압도적인 표 차로 우세하였으나, 과반 득표에는 실패해 6월 17일 대선 결선 투표가 진행될 예정임.
- 2차 결선투표를 가정한 설문조사 결과, 이반 두케 후보가 2차 경선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현재까지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음.

<표 6> 주요 정당별 대선 후보 및 지지율

소속 정당	Centro Democratico (민주중도당, CD)	Progressive Movement	Alianza Verde (녹색연합당, AV)
후보	이반 두케 (Ivan Duque)	구스타보 페트로 (Gustavo Petro)	세르히오 파하르도 (Sergio Fajardo)
이력	前상원 의원	前 보고타 시장	前 메데진 시장 후보
성향	강경 우파	좌파	중도
지지율 (*18. 5월 1차경선)	39%	25%	23%

2. 사회 안정 (소요/사태)

□ FARC와 평화협정 체결로 치안 개선 전망

- 2016년 FARC와 평화협정 체결 및 이행을 위한 제반 절차(의회 승인 및 헌재 합헌 판결)가 완료됨에 따라 평화협정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 콜롬비아의 치안상황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총선에서 평화협정을 지지했던 여권 연정이 다수의석을 차지하며 평화협정이 존속될 것으로 보이나, 민주중도당이 FARC 평화협상의 일부 수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협정 이행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한편, 산토스 정부는 2017년 2월 7일 또 다른 좌익반군단체인 민족해방군(ELN)과 평화협상을 시작하였으며, FARC와의 평화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ELN과도 단기간에 평화협상을 완료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 다만, ELN이 FARC 보다 강성인 점, 산토스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 최근 2월까지 폭탄 공격이 자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평화협상 완료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됨.

3. 국제관계

□ 태평양동맹 회원국, FTA 체결국과 협력관계 지속 및 중국과의 교류확대

- 콜롬비아는 태평양동맹\* 회원국으로 멕시코, 페루, 칠레 등 타 회원국 및 한국, EU, 미국 등 FTA 체결국과는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됨.
- \*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은 2012년 7월에 결성되었으며,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페루 등 4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체임.
- 2012년 및 2015년 우리나라 대통령이 콜롬비아를 방문하고, 2011년 산토스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한한 바 있으며, 2013년 우리나라-콜롬비아간 체결한 FTA가 2016년 7월에 발효되었음.
-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반(反)이민 정책, 중남미 지원예산 삭감 등 콜롬비아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에 대해 경제·무역 분야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이에 콜롬비아는 미국에 대한 높은 교역 의존도를 해소하고자 최근 중국과의 교역을 확대하는 추세임.

-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2001년 이래 가장 적은 금액인 12억 달러를 중남미 지원예산으로 배정함.
- 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에 따르면 중국은행 및 기관은 2017년 중남미에 234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중남미 내 영향력을 확대 중임.
- 중국은 지난 10년 간 중남미 국가 정부 및 기업에 1,500억 달러의 투자 및 차관을 제공한 바 있으며, 2017년 중국-중남미 간 교역규모는 2,600억 달러에 달함. 뿐만 아니라 중국 시진핑 정부는 2025년까지 중남미와의 교역 규모를 5,000억 달러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 베네수엘라 위기사태로 치안불안 및 구제비용 부담

- o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는 최근 심각한 정치·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콜롬비아 유입으로 마찰을 겪고 있음.
- 최근 베네수엘라 국민이 위기 탈출구로 인접국인 콜롬비아로 대규모 유입\* 되고 있음. 이에 콜롬비아는 3,000명의 보안요원을 베네수엘라 인접국경에 배치하고, 단기간 콜롬비아 체류를 허용하는 비자발급을 중단하는 등 치안 불안 및 인도적 구제비용 등에 대한 부담을 겪고 있음.
- \* 2017년 말 기준 55만명의 베네수엘라 국민이 콜롬비아로 유입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62% 증가한 수치임.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비교적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유지

- o 콜롬비아는 1980년대 파리클럽을 통한 채무재조정을 경험한 여타 중남미 국가들과는 달리 해당 경험이 없고,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금액 감안시 비교적 양호한 외채상환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2017년 9월말 기준 OECD 회원국 ECA 승인금액은 66억 달러(단기 16.2억 달러, 중장기 49.8억 달러) 중 연체금액은 17.9백만 달러임.

2. 국제시장평가

□ 국제신용평가사, 투자적격등급 유지

- o OECD는 2006년 콜롬비아의 국가위험도 평가등급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4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7년 10월 OECD 국가신용도 평가회의에서도 콜롬비아의 정치안정 및 치안개선, 경제성장 지속 등을 근거로 별다른 이견 없이 4등급으로 결정되었음.
- o 국제신용평가 3사 모두 콜롬비아에 대한 투자적격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Moody's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2018년 2월 신용등급 전망을 'Stable'에서 'Negative'로 하향조정 함.

<표 7>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4등급 (2017. 10)	4등급 (2016. 10)
Moody's	Baa2 (2018. 2)	Baa2 (2016. 5)
Fitch	BBB (2017. 10)	BBB (2016. 7)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1962년 3월 10일(북한과는 1988. 10. 24)
- **주요 협정:** 문화협정(1976), 사증면제협정(1981), 과학기술협정(1992), 무역협정(1986),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2010), 이중과 세방지협약(2014), 자유무역협정(2016)
- **해외직접투자현황:** 2017년 12월말 기준 52건, 326,232천 달러 (누적)
- **교역규모**
  - 2013년 우리나라-콜롬비아간 체결된 FTA가 2016년 7월에 발효됨에 따라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칠레(2004년), 페루(2011년)에 이어 우리나라의 세 번째 FTA 체결국이며, 교역규모는 14억 달러 수준임.
  -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등이며, 수입품은 석탄, 커피, 동제품 등임.

<표 8> 한·콜롬비아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주요 품목
수 출	1,509	1,129	853	814	자동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수 입	608	323	433	651	석탄, 기호식품, 동제품
교역규모	2,117	1,452	1,286	1,465	-

자료: 한국무역협회.

### V. 종합 의견

- 콜롬비아는 2017년 낮은 원자재 가격의 지속으로 1.9% 수준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18년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 공공인프라 투자 증가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2.7%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저유가 기조와 기대 이하의 세계개혁 효과로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GDP 대비 3.1%까지 확대됨. 2018년에는 유가회복세에 힘입어 재정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회 복지프로그램 및 평화협정 이행 등에 따른 정부지출 가속화로 인해 재정적자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무역수지 개선으로 2017년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GDP 대비 3.4%로 축소되었으며, 2018년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적자규모가 2%대로 보다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산토스 정부는 상·하원 내 연정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유지해왔으며, 2018년 3월 총선에서도 연정이 양원내 다수석을 유지하였음. 또한,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였던 반군단체 FARC와의 평화협정 완료로 치안에 대한 개선이 기대됨. 다만 2018년 6월 예정된 대선에서 강경 우파 성향의 이반두케 후보가 당선될 경우 평화협정 일부 수정 등 정책변화의 가능성이 있음.
- 2018년 5월 OECD 회원국 가입에 따라 선진국 반열에 진입했다는 대내외적 홍보효과 및 정치·경제적 투명성·안정성 제고될 것으로 전망되며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 외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7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이 48.5%를 기록하는 등 외채 상환부담은 큰 편이나, 총 외채 1,515억 달러 중 중장기 외채가 67%이고 비교적 양호한 외채상환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조사역 정수아 (☎02-6255-5716)  
E-mail: sua@koreaexim.go.kr